

경제 돋보기

미분양 넘쳐나는데...

주공이 아파트 계속 짓는 까닭은

광주지역에 사상 초유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여 있는데도 공공인 대한주택공사가 나홀로 아파트 공급을 계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 주택업체들은 사실상 주택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공이 공격적인 공급에 나서 미분양 유발 책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16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급할 물량은 국민임대주택 6천347가구, 공공임대주택 184가구, 분양주택 1천311가구 등 총 7천84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물량 공급은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한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1만2천669가구라는 점을 감안할때 국민·공공임대주택 제외 하더라도 매달 폭탄 수준이다.

광주 최악의 '미분양'속 을 7천여채 공급

"적정가 유도" 주장하지만 시장악화 초래

"공기업 목표량 채우기 아니냐" 비난도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주공 물량이 12.4%인 1천570가구에 달해 미분양 적체에 일조한 공기업이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주공의 미분양 물량은 대다수가 30평(전용면적 75㎡)~34평형(전용면적 85㎡)으로 광주 전체 미분양 물량의 65.7%(7천950가구)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이하와 겹친다.

이 때문에 민간 주택업체들은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에게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당초 설립취

지와 달리 수요층이 가장 많은 중산층을 겨냥해 분양 아파트 사업에 나서 미분양 적체를 조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민간 주택업체들은 또 주공이 민간 아파트에 비해 평균 15%나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은 소비자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계속 '나홀로'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

다"며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해 마구잡이식으로 분양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미분양의 원인은 전적으로 민간 주택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대량 미분양 사태는 민간업체들이 수완지구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공은 그 근거로 광주 미분양 물량의 43.8%가 몰려 있는 수완지구(5천551세대)에는 주공 물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주공측은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일정량의 주택을 공급, 적정 수준의 주택 가격을 유도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항사마케팅'도 불황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 등 판매 부진

마스크·미용 팩 등 저가품 매출 증가

매년 이맘때면 특수를 누리던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들이 극심한 활사에도 판매가 저조하다. 대신 이들 제품의 대여는 크게 늘고 있다.

16일 홈플러스 계열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항사 관련 가전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 시내 공기청정기 대여업체의 경우 임대 문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대여량도 재고물량을 구할 수 없어 설치작업을 못 할 정도다.

불황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50만원대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대신, 월 2만원대의 대여를 선택한 때문이다.

산세베이나 등 공기정화식물을 찾는 소비자 많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화해관광단지에서 경우 공기정화식물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예년

보다 30%가량 늘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유통매장에서도 마스크, 피부미용 팩 등 저렴한 항사용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더 팔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항사용품 특별 세일을 진행, 향긋마스크(1천300원), 공기청정기(3천990원), 풀모과차(3천990원)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대형소 특별 기획 '주방·청소 세계 모음전'을 열고 5천원 이상 세계 구매고객에 한 해 세차카드를 무료증정하고 있다. 또 비누, 클렌징 등 목욕용품도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도 발 터치 청소기(9천800원), 부직포 청소기(4천800원) 등 청소용품을 20~45%까지 할인판매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C&중공업 해외매각 일단 무산

말레이시아 펀드 보증금 100억 입금 안돼

C&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의 대출 만기연장 등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16일 공식 종료됐다.

채권단은 지난 13일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자동 종료됐지만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의 요구로 이날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이행 보증금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수의향 업체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펀드가 이행보증금 이체나 MOU 체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채권단은 추가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C&중공업에게 남은 길은 ▲워크아웃 재신청 ▲법정관리 ▲파산신청 ▲자체회생 등 4가지다. 하지만 워크아웃 재신청과 자체회생 방안은 채권단과 채권단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신청의 경우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C&중공업의 생사여부는 다시 채권단에 의해 판가를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C&중공업은 만일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이 결정되면 공익회와 관련된 자체적으로도 해외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채권단으로부터 이렇다할 이야기를 들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 해외매각이 무산된다면 이미 실사로 마친 상황이므로 자체 해외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같은 ▲워크아웃 재신청 ▲법정관리 ▲파산신청 ▲자체회생 등 4가지다.

하지만 워크아웃 재신청과 자체회생 방안은 채권단과 채권단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신청의 경우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C&중공업의 생사여부는 다시 채권단에 의해 판가를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C&중공업은 만일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이 결정되면 공익회와 관련된 자체적으로도 해외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채권단으로부터 이렇다할 이야기를 들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 해외매각이 무산된다면 이미 실사로 마친 상황이므로 자체 해외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유영대 남서울대 교수 특강



16일 광주신안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제39회 여성경제인포럼에서 유영대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래 변화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위기일수록 신뢰·사랑의 리더십을"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직을 신뢰·감정·사랑으로 이끄는 선순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가 16일 광주신안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제39회 여성경제인포럼에서 유영대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이 주장하고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우선적으로 선순환 리더십을 함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이날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순환 리더십은 신뢰와 사랑으로 직원들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이끌어 고객만족-이익창출-복지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기업경영에 있어 리더는 올바른 선순환 리더십을 추진해서 조직원들의 의지나 정서, 열정과 신념을 바람직하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EO들이 직원들과 신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일치해야 신뢰·감정·사랑의 인간관계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의 성공 조건으로 조직의 ▲미래비전 제시 ▲상호 신뢰 분위기 창출 ▲잠정 극대화 등을 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순환 리더십은 신뢰와 사랑으로 직원들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이끌어 고객만족-이익창출-복지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10년 뒤 지구촌 회의 방식은 미래경영에 적극 대비하는 기업, 국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미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개인조직관리를 하고, 기업경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순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상의 회장 연임 될듯

이승기 삼능건설 회장 단독 출마

제20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이승기(57·삼능건설 회장)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연임이 유력해졌다.

광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날 오후까지 4일간 계속한 제20대 회장 후보자 접수에 이승기 삼능건설 회장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앞서 지역상공인들은 경제위가 극복을 위해 경선 없는 상의 회장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중소제품 우선 구매를"

광주 은 흥석우 중기청장



흥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6일 김수현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

흥청장은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 구매 관례에 대한 말발과 반수 찬성시에는 당선,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때는 7일 이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재선출하게 된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임의원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상근부회장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상의 선거규정은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 만일직으로 당선

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출석의원 추대도 뜻을 모아왔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상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novita http://www.novita.co.kr. 아직도 비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집들이선물! 호도선물! 신혼부부필수품! 근무하는 건물/사업장, 공부하는 학교, 생활하는 아파트/주택. 관공서 납품처. 노비타비데호남총판 비데프라자 ☎(062)515-1144 ※위 치: 동림 2지구 동림병원 앞